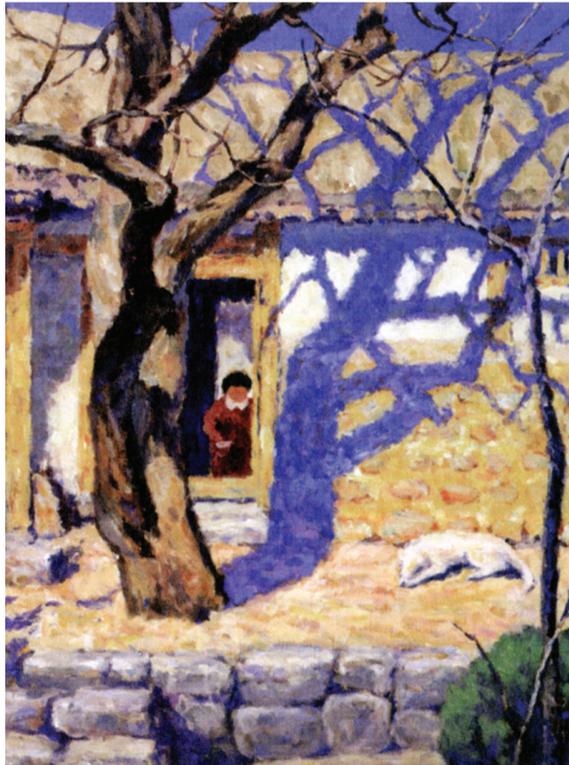


## 가을 ... '거장' 오지호·천경자를 만나다



오지호 작 '남향집'



오지호 화백 천경자 화백

천경자 화백 딸 김정희(수미타 김)  
美 몽고메리대 교수 인터뷰 16면

깊어가는 가을, 만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남도가 낳은 거장들의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지호 화백(1905~1982), 독창적·환상적인 화풍으로 감동을 선사했던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전시가 잇따라 11월에 열린다.

두 화백은 각각 화순, 고흥 출신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다소 다르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확립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이다. 20세기 여느 화가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작품성, 선구자적 예술가의 면모를 지녔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천경자 작 '탱고가 흐르는 향훈'

지난 31일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 따르면 한국 1세대 서양화가 오지호 전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열린다.

전시는 '인상주의와 오지호: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라는 주제로 총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작 가운데는 오지호 화백의 동경에 숭배 시절의 졸업 작품, 새로 공개되는 작품도 있을 예정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에서 도표를 거쳐 확산된 인상주의의 시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재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 1세대 서양화가 오지호 작가를 통해 국내 인상주의 화풍 유입과 인상주의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인상주의의 대표화가 모네, 반고흐 등의 삶과 예술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도 전시 기간 만날 수 있다.

오지호 작가 작품이 어떻게 다음세대 화업으로 이어졌는지 조명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 아들인 오승우, 오승운 대표작, 장순인 오병욱 화가(동국대 미대 교수)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해 한국

오지호 -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15일~내년 3월 2일

'인상주의와 오지호: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 ... 총 100여 점 전시

천경자 -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고흥아트센터 11일~12월 31일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 58점 선보여

근현대 서양화단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취지다.

이지호 관장은 "오지호 화백은 우리의 계절에 맞는 빛과 색채를 매개로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번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전은 오지호 작품의 특징을 시기별로 가능해 볼 수 있으며 한국 근현대 서양화단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고흥 출신 천경자 화가 또한 독창적인 화풍과 환상적인 작품세계, 역동적인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던 예술가다.

올해는 천경자 화백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천 화백의 고흥 고흥에서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11일~12월 31일)

이 열릴 예정이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천경자를 예술거목으로 자라게 해 준 고흥은 물론 화가의 예술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 주제는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이며 소장자 등이 대여한 58점,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아카이브 자료 중에는 친필편지, 미공개 사진 등이 포함돼 있어 천경자의 예술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수미타 김) 미국 몽고메리대학 미술과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미국

에서 들어와 고흥에 머물며 이번 특별전 준비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9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어머니 그림 중에 고흥의 추억을 소환한 그림으로 1973에 그린 '갈레넨니'가 있다. 어린시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본 화사한 모습의 갈레넨니는 후일 소록도에 간호사로 갔는데, 갈레넨니의 모자 쓴 모습은 어머니에게 선량과 구원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전했다. 전시장에는 1982년 작 '갈레넨니 II'가 걸릴 예정이다. 관객들은 '갈레넨니'의 응시하는 눈빛을 마주하며 유년의 천경자와 예술가 천경자가 바라본 '갈레넨니'와 조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작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1950년대 그린 대작 '섬의 인상'도 그 가운데 한 작품이다.

김 교수는 "이번 특별전은 고흥군과 전시 팀 모두의 열원이 모아진 결과"라며 "천경자라는 화가의 미술사적 중요성을 주목하고 그의 삶을 알아가는 진밀하면서도 차별적인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美 대선 코앞에 두고 북한, ICBM 도발

윤 대통령 "국제사회와 강력 대응"

북한이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는 민감한 시점에 사거리로 키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지난 31일 도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미 대선을 닦새 앞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새 ICBM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31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1천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이동식발사대(TEL)가 쓰였는지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첫 ICBM 발사 시점으로 이날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즉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기로 했다. 다만, 신규 대북 독자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신용동 초등생 참가...빈소 '눈물 바다' ▶6면

복스 - '인생 내공 고전 수업' ▶14·15면

KIA 김도현·황동하 '내년엔 개막전부터 된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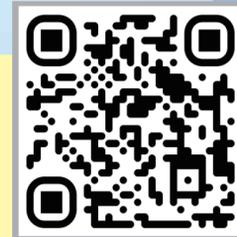
# 전남일자리정보망

새단장 오픈

개통일 2024. 10. 16. (수)

전라남도의 모든 일자리 정보는

전남일자리정보망 검색에서 원스톱 제공



- 사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 시기별 맞춤형 일자리 추천
- 챗봇 서비스 제공
- 일자리지원사업 신청 가능
- 산업별·계층별 지역별 맞춤 정보제공
- 다양한 일자리 관련 통계 제공

홈페이지 주소 <http://job.jeonnam.go.kr>

구인·구직상담(전남일자리종합센터) 동부권 ☎061)750-7700 / 서부권 ☎061)287-1142